

文대통령 “합의로 위안부 문제 해결 못해”

문재인 대통령은 28일 전날 있었던 외교부 장관 직속 한·일 일본 군위안부 피해자 문제 합의 검토 태스크포스(위안부 TF) 조사결과 발표 이후 '12·28 한·일 위안부 합의'에 대한 사실상의 파기 의사를 내비쳤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이 대독한 위안부 TF 결과와 관련된 입장문을 통해 “지난 합의가 양국 정상의 추인을 거친 정부 간의 공식적 약속이라는 부담에도 불구하고 저는 대통령으로서 국민과 함께 이 합의의 위안부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는 점을 다시금 분명히 밝힌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외교적 부담을 언급하면서도 “합의로 위안부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고 분명히 밝힌 점에 미뤄볼 때 위안부 합의의 파기 내지는 재협상·추가협상을 하겠다는 의지를 더 강하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다. 문 대통령은 지

사실상 합의 파기 내지 재협상·추가협상 의지 “절차·내용적 중대흡결 확인...피해갈 수 없어” “역사문제 해결과 별도로 한·일 외교관계 회복”

난 대신 당시 위안부 합의 재협상을 공약한 바 있다.

문 대통령은 “위안부 TF의 조사 결과 발표를 보면서 대통령으로서 무거운 마음을 금할 수 없다”며 “2015년 한·일 양국 정부 간 위안부 협상은 절차적으로나 내용적으로나 중대한 흡결이 있었음은 확인됐다. 유감스럽지만 피해갈 수는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는 역사문제 해결에 있어 확립된 국제사회의 보편적 원칙에 위배될 뿐 아니라 무엇보다 피해 당사자와 국민이 배제된 정치적 합의였다는 점에서 매우 뼈아프다”며

“또한 현실로 확인된 비공개 합의의 존재는 국민들에게 큰 실망을 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진실이다. 진실을 외면한 자리에서 길을 낼 수는 없다”며 “우리에겐 아픈 과거일수록 마주하는 용기가 필요하다. 고통스럽고, 피하고 싶은 역사일수록 정면으로 직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 자리에서 비로소 자유, 화해, 그리고 미래도 시작될 것”이라고도 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저는 한·일 양국이 불행했던 과거의 역

사를 딛고 진정한 마음의 친구가 되기를 바란다”며 “그런 자세로 일본과의 외교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역사는 역사대로 진실과 원칙을 훼손하지 않고 다뤄갈 것”이라며 “동시에 저는 역사문제 해결과는 별도로 한·일간의 미래지향적인 협력을 위해 정상적인 외교관계를 회복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는 피해자 중심 해결과 국민과 함께하는 외교라는 원칙이래 빠른 시일 안에 후속조치를 마련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박 대변인은 ‘문 대통령의 입장을 위안부 파기 선언으로 이해해도 되느냐’는 질문에 대해 “대통령 입장문에 나와 있는 ‘앞으로 빠른 시일 안에 후속조치를 마련해 달라는 말씀으로 제 답변을 대신하겠다’며 즉답을 피했다.

이어 “합의 파기라는 용어를 이제 지금 쓰기에는 적절치 않다”며 “이 문제는 여러 의견을 수렴하면서 정부가 입장을 정리할 것이고 최종 입장을 말씀드리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자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한·일) 합의는 1mm도 움직이지 않는다”고 밝힌 데 대해 “양국의 외교관계는 역사문제만 있는 게 아니다”며 과거사와 현안문제의 분리 대응 방침을 시사했다.

이어 “해조에 우리가 한일관계에서 취해 온 입장은 (역사와 현안을 따로 접근하는) 두 트랙 입장이었다”며 “오늘도 대통령의 입장문에 들어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다뤄지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또 위안부 합의 문제가 향후 한·미·일 공조체계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이 관계자는 “한·일 관계가 한·미·일 관계에 미치는 영향이 없을 수 없다”면서 “외교안보라인에서 이런 것을 고민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백봉신사상 기념촬영 28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진행된 '제19회 백봉신사상 시상식'에서 대상을 받은 박주민(오른쪽 두번째) 의원을 비롯한 수상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세연, 노회찬 의원, 정세균 의장, 박주민, 우원식 의원.

안철수 “말이 아닌 국가안보 위해 노력 모습 지켜봐 달라”

식대 인상·응급헬기 도입 등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28일

“많은 국회의원들이 군과 안보를 위해 노력한다고 말만 하지만 국민의당은 내년 군인 식대비용 인상과 군

용 응급헬기 도입에도 큰 힘을 보탤”고 말했다.

안 대표는 이날 오전 경기 파주시 도라전망대를 찾아 군 장병들을 격려하는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어 안 대표는 “앞으로도 국가안보를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지켜봐 달라”고 당부했다.

안 대표는 도라산전망대에서 비무장지대(DMZ)와 개성공단 일대 지형, 경제작전 현황 등에 대한 설명을 1시간 도라대대 장병식당으로 자리를 옮겨 장병들과 함께 점심식사를 했다.

이 자리에서 안 대표는 “북한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근무하는 군 장병들을 격려하기 위해 이곳에 왔다”며 “국가안보 현장에서 헌신하는 전방부대 장병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지역광고의향상도, 정통의뢰 전화 062-224-5800

湖南新聞 팩스 062-222-5548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가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현안 관련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김성태 “靑, UAE 원전게이트 숨기려고 문서 파기하고 있어”

“문재인 정권 실상 국민들이 알게 될 날 머지않아”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28일 “아랍에미리트(UAE) 원전 게이트를 숨기고 흔적을 남기지 않기 위해 지금 청와대 문서가 파기되고 있다는 제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자신들이 저지른 이 어마어마한 행위에 대해 아무런 흔적과 기록을 남기지 않기 위해 (정부가) 반정부적인 형태로 국가운영을 하며 국민들을 기만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국민을 혼란으로 빠뜨리는 문재인 정권의 인민재판식 국정운영의 실상을 국민들이 알게 될 날이 머지않았다”며 “더불어민주당은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 한 명을 보호하려고 언제까지 UAE 원전게이트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를 거부할건가”라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국가 간 신뢰, 감당하지 못할 외교적인 문제 때문에 할 말을 못하고 있는 제1야당 원내대표의 마음을 헤아려달라”며 “이 어마어마한 정권이 지난 8개월 동안 국내 원전을 거덜 내고 국회에서도 엄청난 사고를 쳤다. 그 몫을 짓 한 걸 국민들에게 밝히고 사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헌법개정특별위원회(개헌특위) 활동기한 연장 문제 등으로 인하여 여야가 국회 본회의 개최에 합의하지 못하고 있는 데 대해 김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민생 법안 운운하며 국민개헌을 겁어치려는 비열한 공작정치에 말문이

막힌다”며 “근래 민주당과 청와대의 정치공작과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의 ‘임을 위한 아부곡’ 이 도를 넘어 국회를 마비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우 원내대표는 도대체 청와대에 무슨 빚을 졌기에 이렇게 일반적으로 국회를 마비시키고 국민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는 지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가지 않는다”며 “개헌특위 연장과 기타 나머지 사안들을 분리해서 처리하지는 언급은 국회 본회의 파행의 책임을 야당에 떠넘기고 문재인 관세 개헌을 하려는 최악의 정치 꼼수”라고 비판했다.

김 원내대표는 “국가 체제를 바꾸고 국가 백년대계를 만들 헌법개정을 지방선거에서 폐기하지 여행상품 뺄 처리 하듯 묶어서 하려는 저급한 정치는 즉각 중단돼야 한다”며 “개헌특위와 정치 개혁특별위원회(정개혁위)를 묶어서 6개월 동안 특유활동 기간을 설정한다면 한국당은 조속한 시기 내에 개헌안을 마련하기 위해 최대한 노력하고 협조하겠다”고 덧붙였다.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설치와 관련해 김 원내대표는 “법원, 검찰, 경찰 개혁을 위해서 한 국당은 하루빨리 사개특위를 구성할 것을 촉구한다”며 “이를 위해 사개특위에 입법권을 부여하는 것을 수용하겠다. 사개특위에서 합의된 내용들은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최소심사만 거치고 바로 본회의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한국당은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스마트폰에서 검색해보세요! (주)에이치엔프레스

자연석/호박돌/간판석/판재석/조경용석재 등 석제품의 모든 것

광주 전남 석제품 전문

저희 (주)에이치엔프레스는 석제품전문대량판매 및 납품전문업체로서 자연석, 호박돌, 간판석, 판재석, 조경용 등을 납품하고 있습니다.

문의전화 TEL : 062-224-5800 H·P : 010-5448-8868

광주광역시 동구 남문로 753번길 7